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칸트의 자유는 칸트 저작의 핵심이 되는 초월적 관념론의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초월적 관념론이란 현상과 물자체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칸트는 초월적 관념론에 따라 현상계에서의 자연적 인과성과 예지계에서의 자유의 인과성을 구별한다. “이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과 관련해서 우리는 오로지 두 가지 원인성만을 생각할 수 있다. 곧, 자연에 따른 것(자연에 의한 원인성)이거나, 자유로부터의 것(자유의 원인성)이다.”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는 현상계는 자연 인과성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 인과성이란 결과는 반드시 원인을 가지며, 그 인과의 연쇄는 끝없이 무한 소급되므로 자유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자유는 시공간의 제약 아래 있는 감성계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칸트는 현상과 구별되는 물자체를 말함으로써 자유를 구제한다. 시공간, 즉 감성 세계를 뛰어넘는 곳에 자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연의 인과성은 경험적 질료적 조건을 따르는 것이고, 자유의 인과성이란 원인 없는 원인, 나 스스로가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스스로 원인이 된다는 것은 시공간 내의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새로운 사태의 계열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사태의 계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연 인과성을 끊고 자기 스스로가 최초의 원인이 되는, 즉 스스로 시작하는 절대적 자발성이 요구된다. 칸트는 이를 가리켜 ‘초월적 자유’라고 부른다. 이것은 능동의 극치점이다.

초월적 자유의 나로부터 시작하는 절대적 자발성은 원인 없는 원인, 즉 무조건적임을 의미한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원인 없는 원인으로서 내가 최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외부의 원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절대적 자발성을 지닌 이성적 의지는 조건 없이 행하는 의지이다. 칸트에게서 의지의 무조건성은 자기가 자기에게 조건이 되는 자율을 가리킨다. 그러나 절대적인 자발성이라고 해서 그것이 외부의 타자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크 카우치(Mark Cauchi)는 “의지가 진정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복종해야 하는 법칙인 자율은 이성으로 하여금 타자를 고려하도록 의무 지우는 도덕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다.

1. 윗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세계의 모든 일은 두 가지 인과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② 예지계는 감성 세계를 뛰어넘는 시공간을 의미한다.
- ③ 현상계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세계를 의미한다.
- ④ 감성 세계에서는 원인의 결과가 동시에 원인일 수 없다.
- ⑤ 절대적 자발성을 지닌 이성적 의지는 예지계의 초월적 자유를 단초로 삼는다.

2. 윗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유의 원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연적 원인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 ② 경험적 질료적 조건은 물자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의미한다.
- ③ 초월적 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 스스로가 최초의 원인이 되기를 의욕해야 한다.
- ④ 마크 카우치는 자기가 자신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독립된 주체성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본다.
- ⑤ 자연 인과성으로부터의 독립은 필연적으로 타자를 고려하도록 의무 지우는 도덕법칙을 통해 온전한 자유로 이어진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가장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 사이의 구별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거한다. 의무에 맞는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가 순전히 경향성일 때에도 가능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오로지 도덕 법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 ①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는 예지계에서의 자유적 인과성에 따른 행위이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현상계 내부의 법칙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다.
- ③ 칸트에 따르면 '의무에 맞는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와 달리 절대적 자발성에 의한 행위이다.
- ④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달리 자기가 자기로부터 비롯된 자율성에 입각한 행위이다.
- ⑤ 칸트에 따르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 모두 타자를 고려해야 하는 당위를 수반한 행위이다.

본문 출처: 이나미(Na-Mee Lee). (2019). 칸트의 자율과 레비나스의 타율에 있어서의 '자유의 수동성' 연구. 신학사상, 187(), 439-470.